

### 화천군 초중고 입학 축하금 대학생 학자 지원금 지급

화천군이 이달부터 지역 초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 지급을 시작한다.

군은 지난달 신청 접수를 진행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초등학생 113명, 중학생 137명, 고등학생 112명 등 모두 362명의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군이 각 개인별로 화천사랑카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면, 학생들은 이를 지역 서점과 문구점 등 지정된 업체에서 입학 관련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도 2026년 1학기 지역인재육성 학자 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지급을 준비 중이다.

재단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 468명, 거주공간 지원 433명, 고교 진학우수 및 진로장려금 대상 4명 등 모두 909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대학 학자 지원금의 경우, 등록금에서 국가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전액이 지급된다.

거주공간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까지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100%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지급 한도가 매달 6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됐다.

또 올해부터 세계 100대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해 대학별 기본별 기숙사비 지원이 정규 학기 동안 이뤄진다.

최문순 화천군수(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는 “화천지역 인재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기질비료 52억 원 지원... 농자재 수급불안 대응

요소 등 6만5천톤 지원...농가 경영 부담 완화

가격 상승분 80% 할인 공급

청소년 수련시설 등 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강원특별자치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에 대응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요소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약 38.4%가 수입되고 있어 수급 불안 장기가

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는 총사업비 52억 1,900만 원(도비 3억 1,300만 원)을 투입해 무기질비료(요소 등) 6만 5,237톤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를 구매한 농업경영체이며, 농협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해 공급한다.

김민석 기자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본격적인 영농기(5월까지)에도 차질 없는 농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개학 이후 체험학습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청소년 수련시설 등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도와 18개 시군은 서울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등 38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준수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조리종사자 위생 관리 ▲지하수 사용시설 살균·소독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조리식품과 완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규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식품안전과장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수련시설과 대형학원 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 춘천시 아동보호구역 4곳 추가 지정

춘천시가 춘천초, 신동초, 춘천계성학교, 춘천동원학교 등 4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지정·관리되는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구분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춘천시에는 지난 2014년 장학초등학교가 지정됐다.

시는 학교별 이용 학생 수와 재학생 특성, 이용 밀집도, 도보 통학 여부, 범죄 발생 위험도 및 치안 취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춘천초, 신동초, 춘천계성학교, 춘천동원학교 4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7일까지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최종 지정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학교 주변 외곽 500미터 안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또한 시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학교별 안전지도 인력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계기로 모든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 양구군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발대식

양구군이 4월 13시 청소년수련관 별관에서 ‘2026년 양구군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운영된다.

올해는 총 77명으로, 군의 주요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15명과 청소년 수련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62명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양구군 청소년을 대표하여 다양한 자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발대식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실질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양구군은 그동안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왔다. 지난해 열린 군수 간담회에서는 총 16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시내버스 전기버스 교체, 농·특산물 홍보 확대,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 12건이 실제 군정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참여기구는 연합 교류 활동, 청소년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제군, 국도31호선 상남~기린 구간 직선화 교통여건 개선

인제군을 지나는 국도31호선(상남~기린) 도로건설공사가 본격 추진 되면서 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부터 기린면 복리까지 총 11.85km 구간의 기존 도로를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1억원이 투입되며 203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구간은 급커브와 협소한 도로 폭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이번 개량사업을 통해 급커브 구간의 직선화와 도로 선형 개선이 이뤄지면 안전성과 주행성이 함께 높아져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제 스피드웨이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사업은 2025년 12월 공사계약을 완료했으며, 2026년 상반기 중 시공착랑과 토지·물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보상계획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단계별 공정을 통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낮과 밤을 잇는 벚꽃의 향연, 속초 영랑호 벚꽃축제 개최

4월 11일~12일, 영랑호 잔디마당 일원...공연·체험·먹거리 '풍성'



속초시가 오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영랑호 잔디마당 일원에서 2026 영랑호 벚꽃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공연, 체험, 마켓, 먹거리가 결합된 복합형 봄 축제로, 영랑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봄날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낮과 밤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낮에는 체험버스, 나무 놀이터, 플라마켓, 먹거리 버스 등이 운

행된다. 밤에는 약 300m 구간의 벚꽃 터널 경관조명과 범바위 미디어아트, 반딧불 조명 등 야간 콘텐츠가 펼쳐진다.

행사 첫날인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영랑호 온에어 보이는 라디오’, ‘버블&별류쇼’, ‘에버블라썸 스테이지(감성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벚꽃을 배경으로 한 ‘선셋 요가’와 ‘모닝 요가’도 운영한다.

나무 놀이터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기자

지역 상생을 위한 플라마켓 18개소와 먹거리 버스 22개소도 축제에 참여한다. 행사장 전역을 연결하는 스램프 투어 프로그램 ‘영랑호 다섯발자국’을 통해 방문객은 주요 공간을 체험하고 인증 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랑호 일원에서는 2026 속초 문화버스킹도 함께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공모에서는 당초 계획된 선정 규모를 웃도는 지역 예술인들이 지원했으며, 대중가요, 클래식, 재즈 등 전문성을 갖춘 최종 8팀이 선발됐다.

문화버스킹은 영랑호의 수려한 벚꽃 경관을 배경으로 관객과 가까이 호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연은 11시, 13시, 15시, 17시에 진행되며,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봄의 정취와 일상 속 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벚꽃축제의 풍성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영랑호 일원을 북부권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확장하는 역할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평창군,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최우수 지자체

평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해예방 사업 추진 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인천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918개 재해예방 사업장을 평가했으며,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조기 발주, 예산 신속 집행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과 서류 평가를 병행해 진행됐다.

평창군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2025년에는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재해예방 분야에서의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재해예방 사업 추진 실태 점검은 매년 상반기 재해예방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조기 발주, 예산 신속 집행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서류 평가를 통해 평가되며,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 고성군,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

평화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민원을 반영한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사회

단체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참여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편성을 통해 사회단체와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기능이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수원특례시

(26년 3월 27일부터)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수원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대상**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사업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 보건의료
- 주거지원
- 가족지원
- 건강관리
- 일상생활돌봄
- 장기요양
- 스마트 안부확인

\* 개인별 상황(건강·소득·재산 등)에 따라 서비스 종류, 내용 조정될 수 있음

**신청·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